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보라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비트코인 1억설 현실화할까공급량 조절과 기관 진입이 관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올해 초부터 주목받은 '비트코인 1억설'은 현실화할까.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1억 돌파 시점을 내년으로 예상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세장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1억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쏘아 올린 불장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뚜렷한 호재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1억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S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1억설에 힘을 보탠다. 제프 켄드릭 SC 디지털자산 연구 책임자는 1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지금보다 67% 오른 5만달러(6330만원)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12만달러(1억5186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만달러는 현재 비트코인의 4배 수준이다.SC가 내세운 1억설 재료는 '비트코인 공급량 조절'이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 공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거란 전망에서 제기됐다. 최근 상승장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비용을 넘어서자, 채굴업자들이 가치 상승을 위해 공급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산유량으로 유가를 조절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켄드릭은 "채굴자들은 올해 2분기 채굴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했지만, 가격이 5만달러로 상승하면 (전량이 아닌) 20~30%만 팔 것"이라며 "비트코인 순 공급을 줄여 비트코인 가격을 더 높게 밀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내년 4, 5월에는 비트코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매일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3경원 풀려"다른 1억설 재료로는 '기관투자자 진출'이 꼽힌다. 큰손으로 불리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매수세 유입 등의 즉각적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해당 효과는 블랙록을 비롯해 대형 운용사들이 상장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비롯할 전망이다. 현재 운용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은 ETF 승인 발표 전부터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상태다. 블랙록이 ETF 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에도 들썩였기 때문이다. 블랙록 ETF 신청은 한 달 넘게 부진했던 비트코인을 폭등시킨 '일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한다.이에 실제로 해당 ETF가 최종 승인된다면 최근 강세를 더욱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승인에 따라 유입될 자금 규모만 3경원으로 예상될 만큼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에릭 발츄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30조달러(3경8784조원) 규모의 자본이 갑자기 시장에 풀릴 수 있다"며 "다수의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정식 운영을 개시한 월가 코인거래소 'EDX Markets(EDXM)'도 기관투자자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EDXM은 시타델과 피델리티, 찰스 슈왑, 세콰이어 캐피탈, 패러다임 등 월가 주요 리테일 증권사와 전문 마켓 메이커, 벤처 캐피탈(VC) 등이 모여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다. 앞서 출시 계획 발표 당시부터 '월가 공룡이 만든 코인거래소'란 타이틀을 얻으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시장은 EDXM을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대형 호재로 꼽고 있다. 기관투자자 서비스만 지원하는 만큼 코인 시장 큰손으로 알려진 '미국 기관투자자' 유입을 도울 거란 기대에서다.헤이든 휴즈 알파 임팩트 공동 설립자는 "최근 상승장은 기관 수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EDXM 개시는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깊이를 더할 거란 기대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코빗 리서치센터, 분석 보고서 발표…마이닝·개발자·자산 등 분석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중앙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보고서에서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했다. 나카모토 계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제어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참여자의 수다. 지니 계수는 전통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다. 블록체인에 대해 완전한 탈중앙화 상태는 0이고 완전한 중앙화는 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했다.탈중앙화가 개선되면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하는 것이다.리서치센터는 계수들을 토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주요 노드 운영 주체의 점유율) ▲클라이언트 ▲개발자 ▲노드 ▲자산 보유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자산 보유 항목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다. 비트코인이 상위 참여자들만 보유한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개발자와 노드에서의 탈중앙화는 후퇴됐다.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커밋(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개발자의 참여도)'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 핵심 개발자의 커밋 개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비핵심 개발자들의 커밋은 감소했다. 전체 개발자 커밋 분포가 이전보다 상위 개발자에게 밀집돼 개발자의 분산화 정도가 낮아졌다.지난 1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출시됐다. 새로운 개발자 유입과 노드 증가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개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결과가 반대였다.자산 보유의 탈중앙화는 오디널스와는 무관하며, 상반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장기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더리움은 마이닝과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고 자산 보유 분야에서는 후퇴됐다.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 4월 이더리움 스테이킹 출금이 허용되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 개발자가 많아졌고 업그레이드 완료 후 이더리움의 인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지갑 주소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잔액 변동이 컸기 때문에,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앙화 정도가 커졌다고 판단했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모든 블록체인은 최초 출시될 때는 중앙화된 형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노드 운영자가 늘어나며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성장한다”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행위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 판단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탈중앙화 측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美법원 "개인에겐 증권 아니다"리플가격 75% 이상 치솟아이더리움 24시간만에 7.7%↑우리기술투자·한화투자증권 등관련 기업 주가도 나란히 상승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 /연합뉴스[서울경제] 가상자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 결과 핵심 쟁점에서 승리를 거뒀다. ‘가상자산=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깨지면서 리플 가격은 이날 75% 이상 급등했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XRP) 토큰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이 지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와 리플랩스 간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은 XRP의 증권성 여부였다. 이는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됐다.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SEC와 미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리플의 사실상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리플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6.76% 급등한 0.79달러(약 995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오전 3시 25분께 0.88달러까지 치솟으며 2022년 4월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또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3만 1406달러(약 3964만 원)로 24시간 전보다 3.67%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약 열흘 만에 재차 경신했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7.72% 상승한 2010달러(약 254만 원)를 기록했다.글로벌 대형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김치 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오후 2시 기준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2.88%, 클레이튼은 8.44% 올랐다. 미국의 이번 판단이 국내 금융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월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조각투자 등에 쓰이는 토큰증권(ST)은 ‘증권’으로 구분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상장해 있는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정의가 미국과 조금 다르다”며 “국내가 조금 더 엄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나란히 올랐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25% 가까이 급등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 주가가 각각 전날보다 11.2%, 7.38% 상승 마감했다. 자회사를 통해 빗썸코리아 지분을 7% 보유한 위지트 주가도 전날보다 3.38% 올랐다.美 법원 “일반투자자에 판 리플은 증권 아니다”기세 꺾인 SEC… 알트코인 상승·거래소 투자 재개SEC 항소도 변수… “회복세 길지 않을 것” 예상도  
  
  
  
그래픽=손지인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 코인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 대형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거래소 등도 규제 부담을 덜게 되면서 코인 관련 투자와 신사업도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13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은 증권성 코인에 해당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고 판 것은 미래 투자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한 리플은 증권성 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판결 직후 리플 가격은 한 때 90% 넘게 급등하며 93센트까지 치솟았고, 한국 시각으로 1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79센트를 기록 중이다. 리플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50센트를 밑돈 가격에 거래돼 왔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전날보다 24.5% 상승한 107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상폐 위기 벗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호재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증권성 논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알트코인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올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회복됐지만, 알트코인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였다. SEC가 리플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종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증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폐 우려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SEC는 지난달 솔라나와 폴리곤, 에이다 등 19종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증권성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인 엠버데이터의 크리스 마틴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여러 알트코인 역시 앞으로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토큰이 대량으로 상폐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체 가상자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SEC의 규제를 받았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들이 다시 투자와 신사업 추진을 재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SEC는 지난달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증권성 코인을 상장해 중개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이 증권성 논란을 벗어나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 완화 입법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이 폭등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추진 중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되려면 코인베이스와 맺은 시장 감시 공유 계약을 SEC가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의 제소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판결로 지적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성사될 경우 그동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美 법원 “기관투자자 대상 리플 판매는 증권법 적용”… 논란 불씨다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알트코인에 대해 낙관론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뉴욕지방법원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에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지만,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한 데 대해서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위해서는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가세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SEC의 항소 여부도 변수다. 외신에 따르면 SEC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 행위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에 환영했지만, 일반투자자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SEC가 항소해 다음 판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모처럼 활력을 찾은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며 비트코인이 4% 가까이 하락, 다시 3만 달러 대로 주저앉았다.1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7% 급락한 3만249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비트코인은 리플 효과에 힘입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었다.그러나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 그치며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왔다.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도 오늘은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전일 리플과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은 지난 30개월을 이어온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이 같은 호재로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은 그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리플은 시총 5위로 한계단 내려섰다.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3% 이상 하락, 다시 3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리플 효과’가 하루에 그친 것이다.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암호화폐 리플의 승소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코인베이스가 54%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BofA의 애널리스트 제이슨 쿠퍼버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해 ‘매도’ 투자의견을 반복하고 “SEC가 방향을 바꾸고 ETF를 승인하더라도 예상 수익이 주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코인베이스의 최근 랠리는 2분기 실적이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날 암호화폐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약 25% 급등한 10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코인베이스의 핵심 사업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약세장에 갇히면서 거래량이 낮게 유지돼 지난 한 해 동안 압박받았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그러나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급격한 랠리를 펼쳤는데, 이는 블랙록과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관리 및 감시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쿠퍼버그는 “코인베이스가 주요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2분기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블랙록 등이 제출한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 소식에 6월 15일 이후 60% 상승했다”며 “이러한 신청이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코인베이스의 손익 혜택의 규모는 주가가 의미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SEC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실제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고객이 거래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대신 ETF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코인베이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쿠퍼버그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49달러로 2달러 올렸지만 이는 이날 종가보다 약 54% 낮은 수치다.한편 이날 바클레이즈 또한 코인베이스 투자등급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즈는 코인베이스의 최근 거래량 감소와 시가총액 감소, 당국의 규제와 단속 및 최근 주가 상승 등을 하향 배경으로 설명했다.바클레이즈의 벤자민 부디쉬 애널리스트는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급락세에서 올해 140% 이상 반등했지만 이 같은 배경에 향후 랠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며 코인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관련주들이 강세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투자는 이날 오후 1시6분 기준 전날 대비 300원(7.81%) 오른 414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보유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도 전날 대비 42원(5.07%) 오른 870원에 거래된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일부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20년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각)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뜯어보니회계학회 “‘코인 사기’ 방지할 정말 필요한 정책”이르면 10월 ‘세계 최초’ 시행, 깜깜이·먹튀 철퇴거래소·블록체인·증권사·은행·회계업계 파장 촉각투자자 피눈물 없도록 ‘정책 미비점’ 보완도 필요[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팬데믹 종식 후 대내외적 변수 발생"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기술주와 함께 금리 인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비트코인은 CPI 둔화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2% 가까이 빠지며 하락 전환했다. 최근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재신청에 힘입어 진입한 4000만원대도 반납한 것이다. 전날까지 4000만원대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현재 3900만원 초반대까지 밀린 상태다.이날 시장이 주목한 건 6월 CPI 발표다. 6월 CPI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이와 무관하게 빠졌기 때문이다.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대비 3.0%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9%를 넘겼던 CPI 상승률이 1년 만에 3% 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 셈이다. 비트코인과 기술주 등 위험자산은 'CPI 안정세'를 호재로 반영한다. CPI가 인플레이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CPI가 안정세를 보이자 나스닥 등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1.15%나 뛰었다.하지만 이번 CPI 안정세는 비트코인 상승까지 이끌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욕증시와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전문가들을 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 이후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관투자자 진입 등 주요 경제 지표 상황과 무관하게 움직일 대내외적 변수가 잇달아 발생하는 만큼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관계자 A씨는 "코로나 이후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간 커플링 현상이 매우 뚜렷했던 시기에는 비트코인도 CPI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있었던 FTX와 테라·루나 같은 대형 악재들이 해소되고, 규제 정립화와 기관 추가 진출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 방향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트코인, 0.16% 오른 4004만원"비트코인, 내년 1억원 넘을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를 뚫으며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랙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약세를 보이다 재신청 소식이 나오자 상승 전환했다. 2023.07.04. myjs@newsis.com[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상승 전환했다. 가격대는 전날 반납했던 4000만원대를 회복했다. 이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 내년에는 1억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제기됐다.11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6% 오른 4004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0.57% 상승한 4005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80% 뛴 3만411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상승 전환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32% 오른 247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65% 상승한 247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92% 뛴 188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시장은 12일 발표될 CPI에 주목하고 있다. CPI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최근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올해 들어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12만달러까지 치솟을 거란 관측이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자산 연구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이 5만달러(6532만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2만달러(1억5678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 현금 유입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덜 팔 수 있게 된다"며 "채굴자가 비트코인 순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뉴욕증시도 6월 CPI와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전환했다. 다우지수는 0.62%, S&P500지수는 0.24% 각각 상승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지수는 0.18% 올랐다.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7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6·탐욕적인)보다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가상자산 리플을 둘러싼 증권성 소송에서 법원이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14일 오전 9시36분 기준 우리기술투자는 전장 대비 5.73% 오른 4060원에 거래됐다. 위지트도 5.92% 상승한 877원을 기록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지트는 거래소 빗썸 관련주로 분류된다.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리플랩스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리플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과 리플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SEC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다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3.71% 오른 3만1501달러(약 3999만원)로 집계됐다. 아울러 리플은 69.67% 급등한 0.8달러(약 1016원)에 거래됐다.리플[123RF][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4위인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0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은 급등하고 있다.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7.02% 급등한 0.79달러를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20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800달러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국내 가격도 치솟고 있다. 14일 오전 업비트와 빗썸에서 리플 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67% 상승한 1035원과 1028원에 거래되고 있다.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며 코인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관련주들이 강세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투자는 이날 오후 1시6분 기준 전날 대비 300원(7.81%) 오른 414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보유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도 전날 대비 42원(5.07%) 오른 870원에 거래된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일부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20년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각)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미국 정부발 3850억원 상당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 제기돼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 기록…채굴자 수익성 감소  
  
  
  
비트코인.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CPI 시장 예상치 하회'에 뉴욕증시는 '활짝'했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세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진 둔화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한 뉴욕증시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다.13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0.87% 하락한 3945만원을 기록하고 있다.전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작년 동월(9.1%) 대비 큰 폭으로 낮아진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3.1% 상승보다도 낮은 수치다.게다가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라 시장 예상치인 5.0% 상승과 전월의 5.3% 상승에 비해 둔화됐다. 이 같이 근원 CPI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도 크게 완화됐다.이는 뉴욕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했다. 비트코인도 전날 CPI가 발표된 직후 4000만원에서 406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30분 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비트코인은 4000만원선까지 반납한 뒤 4000만원 하회하면서 거래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385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9825개를 이동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 정부발 다량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탐욕' 단계로 위치해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7포인트 내린 57포인트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투자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들의 순입출금량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수치보다 적다.일반적으로 순입출금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의 양에서 출금된 양을 뺀 값으로 현물 거래소의 경우 값이 낮을 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선물 거래소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 기록…"채굴자 수익성 감소"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최고치를 기록했다.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최근 난이도 조정 이후 53.91T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처리 시간 10분을 유지하기 위해 2주마다 난이도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처리 능력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의 채굴이 어려워지도록 조정된다.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채굴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개별 채굴자들의 수익성은 감소한다.시장에서는 최근 마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채굴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채굴자 발 매도세를 감소시키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갠슬러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해 상충 여지 서비스 같이 운영…리스크 관리 부족"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웨비나에서 다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를 재제출 하면서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부족'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환경과 관련해 "거래소들은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복수의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스크 모니터링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갠슬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 코인베이스, 법원에 'SEC 주장 반박' 답변서 제출 허용 요청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가 12일(현지시간)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추가 답변서 제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SEC가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추가 답변서 제출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요청한데 따른 입장문이다. 코인베이스는 제출 문서를 통해 "그간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을 법원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SEC의 요구와 근거는 그간 대법 판례에서 명시된 답변서 불채택(Strike)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이끄는 운용사, 1년 만에 코인베이스 주식 매도캐시 우드가 이끄는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년 만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아크인베스트 간판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11일 코인베이스 주식 13만5152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11일 전날보다 9.8% 상승한 89.15달러로 마감한 바 있다. 최근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과 관련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자, 시장이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상승을 이끈 바 있다.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 4대 주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1개월간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왔다.  
  
  
  
ⓒ News1 김지현 기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뜯어보니회계학회 “‘코인 사기’ 방지할 정말 필요한 정책”이르면 10월 ‘세계 최초’ 시행, 깜깜이·먹튀 철퇴거래소·블록체인·증권사·은행·회계업계 파장 촉각투자자 피눈물 없도록 ‘정책 미비점’ 보완도 필요[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이 폭등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3.7.14/뉴스1<앵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내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달 새 19% 급등했습니다.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카고옵션거래소와 감시 공유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이러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앞서 SEC는 가격 조작 우려를 이유로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요청을 거절해 왔지만, 이번 계약으로 현물 시장에 시장 감시 장치가 마련되면서 불허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제이 클레이튼 / 전 SEC 위원장 : 가상화폐 업계가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대형 운용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점도 이 상품의 안전성을 방증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래리 핑크 블랙록 CEO(최고경영자)는 "그동안 SEC로부터 500건이 넘는 ETF를 승인 받았는데, 상장 거부된 ETF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승인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5만 달러, 내년 말에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기관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어 매수세가 몰릴 것이란 분석입니다.현물 비트코인 ETF는 선물 ETF와 달리 ETF에 만기 연장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높고, ETF에 투자금이 유입되면 운용사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이후 90%나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영상편집 : 심재민, CG : 권슬기)업루트컴퍼니 ‘비트세이빙’ 서비스 재개   
  
  
  
업루트컴퍼니 제공 [파이낸셜뉴스] 적립식 디지털자산 구매 솔루션 '비트세이빙'이 다시 운영된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운영사 업루트컴퍼니가 비트세이빙 서비스를 밝혔다. 업루트컴퍼니는 고객의 자산을 입금받아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의 반복구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타(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 그 중에서도 반복 구매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DCA(Dollar Cost Averaging) 기법을 활용해 리스크 적은 투자방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2, 고객으로부터 예치금을 입금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고에 따라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세이빙 적립식 구매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이후 업루트컴퍼니는 예치금을 직접 입금받는 방식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서비스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연결, 별도의 고객 자산 입금 없이 직접 거래소에 보관 중인 고객 자산을 적립식으로 반복 구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세이빙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원하는 거래소와 비트세이빙을 연결해 원화 송금 없이 본인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계정에서 비트세이빙의 저축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복 구매 주기도 다양해졌다. 매일 정해진 금액만큼 구매하는 '매일주기' 외에 '주 1회', '특별주기'가 추가됐다. 특별주기는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하락 신호가 감지될 때, 또는 상승 신호에 추가 구매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별주기는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루트컴퍼니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반복구매 시 구매 수수료(1.5%)가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유료 구독모델 '세이빙 프라임'이 적용된다. 일반 적립식 구매는 생성한 저금통 1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이빙 프라임에서는 총 3개의 저금통을 운영할 수 있다. 세이빙 프라임 고객은 추가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저금 금액이 자동 조정돼 수식률을 높여주거나 데이터 기반으로 저금 주기를 조정하는 특별 저축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저금통'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세이빙 프라임 이용료는 연간 구독 시 월 4500원이며 서비스 재개를 기념해 2개월간 무료로 제공된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비트코인 같이 미래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디지털 자산을 DCA 기법으로 저축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자산 투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트레이딩뷰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이 힘을 받는 가운데 비트코인 종가가 4044만 원을 넘으면 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뉴스 비티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XRP(리플)의 대규모 랠리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3만1380달러(3966만 원)를 넘겨 거래되고 있지만 관건은 오늘 종가가 3만2천 달러(4044만 원)를 넘기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트코인은 3만1천 달러(3918만 원)와 3만1400달러(3969만 원)의 저항선 구간에서 거래 중으로 100시간 단순 이동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간 당 차트에는 약 3만700달러(3882만 원)의 저항이 자리잡고 있다. 만약 오늘 종가가 3만2천 달러를 넘어선다면 강세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더리움이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세로 전환, 3만500달러(3855만 원)의 저항을 뚫을 수 있었다. 그리고 3만650달러(3874만 원) 저항선을 넘어서자 약간의 멈칫거림이 있었고 3만700달러의 수축형 삼각형 저항을 돌파한 후 다시 휴식이 이어졌다. 현재 3만1700달러(4007만 원)를 최고가로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 현 가격 범위에서 1차 저항은 3만1600달러(3992만 원), 주요 저항은 3만1800달러(4018만 원)로 이를 통과하면 3만2천 달러(4044만 원)의 핵심 저항 돌파를 시도한 뒤 3만2500달러(4106만 원) 테스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후 3만3200달러(4193만 원)까지 넘볼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3만1800달러 저항을 뚫지 못하면 하락 조정에 들어가 지지선인 3만1200달러(3938만 원)에 접근하고 힘을 받지 못하면 2차 지지선인 3만1천 달러(3913만 원)와 3차 지지선인 3만800달러도 위협받을 수 있다.[글로벌시장 지표 / 7월 14일 오전 6시 현재]  
  
  
  
[미국증시 마감시황]뉴욕증시는 13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71포인트(0.14%) 오른 3만4395.1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7.88포인트(0.85%) 상승한 4510.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19.61포인트(1.58%) 뛴 1만4138.57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시장은 이날 발표된 6월 생산자 물가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등에 주목했다.이날 발표된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1% 상승해 시장의 예상치인 0.2% 상승보다 낮았다. 이날 수치는 전달의 0.4%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 올라 전월의 0.9% 상승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소매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전날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라 전달의 4.0% 상승과 시장의 예상치인 3.1% 상승을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강화됐다.다만,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세를 보여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3만7천명으로 전주보다 1만2천명 감소했다.연준이 이달에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9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쉬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9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2%에 그쳤다. 1주일 전에 30% 수준이었던 데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쉴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라면 연준이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연준이 계획한 대로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총 2회 인상할 가능성은 16% 수준으로 1주일 전의 36% 수준에서 하락했다. 즉 시장에서는 연준의 7월 회의가 이번 주기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며 2회 인상 선택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연준의 대표 매파 위원 중 한명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음 달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다. 초강경 통화정책을 주도한 불러드 총재의 사임이 향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이 타이트해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스의 마이크 로웬가르트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책임자는 "PPI는 전날의 CPI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해줬다"라며 "그러나 예상보다 낮은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가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이달) 무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연준은 몇 주 내 금리를 인상하는 경로에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실적 시즌이 시작하면서 기업의 대차대조표로 관심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자산운용사 드베레 그룹의 나이젤 그린 최고경영자(CEO)는 마켓워치에 "미국의 물가 지표는 연준이 침체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라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강하고 탄력적이라는 점은 올해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연준이 완벽한 연착륙을 이뤄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2년물 국채금리는 10bp 이상 떨어지며 4.63%대까지 밀렸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0bp 이상 하락한 3.75%까지 떨어졌다.[특징주]■기술주기술주가 상승했다. 애플 0.41%, 마이크로소프트 1.62%, 엔비디아 4.73%, 아마존 2.68%, 알파벳 4.72%, 메타 1.32%, 넷플릭스 1.43% 상승 마감했다.■전기차주테슬라는 2.17% 오른 277.90달러에 마감했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판매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60.87% 폭등했다. 반면 리비안은 1.51%, 루시드 0.56% 하락했다.■델타 항공델타 항공은 이날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인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주가는 0.5% 하락했다.■펩시코펩시코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 2.38% 올랐다.[유럽증시 마감시황]유럽 주요국 증시는 13일(현지시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범유럽 지수인 STOXX600 지수는 전장 대비 2.82포인트(0.61%) 오른 461.36에 장을 마쳤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24.1포인트(0.32%) 상승한 7440.21에 장을 마쳤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118.03포인트(0.74%) 전진한 1만6141.03에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36.79포인트(0.5%) 오른 7369.8에 장을 마감했다.[중국증시 마감시황]중국증시는 13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1.26% 상승한 3236.48로 거래를 마쳤고,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도 각각 1.61%, 1.85% 상승 마감했다.종목별 등락 상황을 보면 반도체 섹터의 상한가 흐름이 이어졌다. 그 외 CRO, 온라인 게임, 소비전자 섹터도 상승했다.한편 금일 외국인 자금은 135.85억 위안 순매수에 나서며 지난 1월 30일 이래 월간 최대 순매수액을 기록했다.[베트남증시 마감시황]베트남증시는 13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벤치마크 VN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11.22포인트(0.97%) 오른 1165.42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다. 261개 종목이 상승, 67개 종목이 하락했다.베트남증시 시가총액 상위30대 종목으로 구성된 VN30지수도 9.57포인트(0.83%) 1156.11 상승했는데 27개 종목이 올랐고 2개 종목이 하락했다.중소형주 위주의 하노이거래소 HNX지수는 1.09포인트(0.47%) 상승한 229.97포인트를 기록했고 112개 종목 상승, 72개 종목이 하락했다. 비상장기업 UPCoM거래소도 0.30포인트(0.35%) 오른 86.2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99개 종목이 상승을 94개 종목이 하락했다.이날 거래대금은 전거래일에 비해 약 0.3% 증가한 16조6800억동(한화 약 9110억원)을 기록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520억동 순매도로 이날 장을 모두 마쳤다.[국제유가]국제유가는 예상보다 둔화한 물가 수치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14달러(1.5%) 오른 배럴당 76.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 가격은 장중 일시 77달러도 돌파하며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금]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 속에 전날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장 대비 0.1% 오른 온스당 1963.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 더 많은 글로벌투자 뉴스는 [한경 KVINA]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재 몰아보기https://www.wowtv.co.kr/Opinion/SerialColumn/List?subMenu=opinion&Class=G&PlanID=894&menuSeq=79064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법인 투자 활성화 초석 마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며 3700만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21일 서울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차트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상승 재료로는 '블랙록 현물 ETF 신청'이 꼽힌다. 시장 전문가들이 '최고의 호재'라는 평가까지 했던 만큼 향후 시장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3.06.21. myjs@newsis.com[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법인 투자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공정가치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됐다.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관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는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공정가치' 개념을 정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가격'이란 뜻으로 시세와 의미가 유사하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공개적 시장은 없을지라도 잠재적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표시할 경우가 많아 시세보다 더 포괄적 표현인 '공정가치'를 사용한다.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며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절차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법인 투자 길 터줄 것"금융당국이 불분명했던 공정가치 개념을 정비함에 따라 그간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진단이 제기된다.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한다는 건 결국 투자한 가상자산을 시장가격에 따라 즉시 손익에 반영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가치 회계 적용 지침은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본격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중대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국내 가상자산 수탁 전문 회사 카르도의 손경환 대표는 "회계 및 세무 지침 부재는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계좌 개설과 별개로 가상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제 투자에 망설여졌던 것"이라고 전했다.손 대표는 이어 "최근 가상자산법 제정과 함께 회계 지침까지 공개되면서 법인 투자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4대 대형 회계법인 역시 이를 겨냥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카르도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KDAC), 한국디지털에셋(코다·KODA) 등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한 국내 3대 가상자산 수탁사다.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곳이다.회계업계 또한 이번 지침을 반길 전망이다.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띤 만큼 무형자산이 아닌 당기손익 공정가치가 반영되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은 통상 상표권과 특허권처럼 기업이 생산활동 등을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또 장부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평가 손실로 반영하지만,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면 증가액은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금융자산은 무형자산과 달리 가격 하락뿐 아니라 상승도 고려해 결산 시기마다 평가손익으로 표기한다. 이에 회계업계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격 변동을 기업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미국 회계 당국은 이미 이같은 결론을 내린 상태다. 앞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공정가치회계를 적용해 시장 가격을 즉시 회사 손익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게리 뷔셔 FASB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그동안 많은 투자자로부터 공시를 통한 투명한 투자를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가치를 통해 회계에 반영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은행이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아, 사실상 국내 거래소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는 불가한 상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해시레이트 최고치…반감기 대비 행보도 활발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보다 비트코인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내년 반감기 전까지 최대한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2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컴퓨팅 파워 총량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는 약 3억9천995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비트코인' 1만6천→3만 달러 상승에 흑자 전환최근 시장 상황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잇따라 경영난을 겪으며 시스템 가동을 중단한 업체들이 속출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는 2억2천200만까지 떨어졌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만6천 달러 대까지 하락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블록체인 분석 전문 기업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올초 비트코인 시세가 2만1천달러를 넘기면서 가상자산 채굴 사업이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이후에도 비트코인 시세 상승이 거듭돼 지난달 중순부터는 3만 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비해 80% 가량 시세가 올랐다. 시세가 오른 만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수익성도 향상된 것이다.  
  
  
  
비트코인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 채굴 기업 주가가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주가 상승 배경으로 최근 금융권 업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금이 몰린 점, 채굴 업체들이 보유한 장비를 인공지능(AI) 등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하는 점을 짚었다.채굴 보상 내년엔 절반…업계 생존 경쟁 시간 다가온다채굴 사업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생존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반감기 이후엔 채굴 보상이 현재 6.25비트코인에서 3.125비트코인으로 줄어든다. 현 수준의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될 경우 내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생존력을 키우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주요 업체 중 한 곳인 라이엇은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 마이크로BT로부터 채굴기 3만3천여개를 주문하는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구매한 장비는 내년부터 채굴에 쓰일 전망이다.  
  
  
  
불법 채굴장 내부 (사진=우크라이나 보안국)다른 주요 채굴 업체인 허트8마이닝과 US비트코인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부터 합병을 추진 중이다. 최근 더마이너맥은 양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고려할 때, 합병이 완료되면 북미 최대 채굴 업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번스타인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요 업체 중 하나였던 코어사이언티픽이 파산한 점을 언급하면서, 부채가 많은 업체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에 폐업하게 될 것으로 봤다.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비용 감축에 따라 생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업체 간 통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코인베이스 일일 주가추이 - 야후 파이낸스 갈무리(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짐에 따라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전거래일보다 9.78% 폭등한 89.15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코인베이스와 협력, 시장 조작에 대한 SEC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물 비트코인은 주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CBOE와 협력, 공동으로 시장을 감시하기로 한 것.그동안 SEC는 선물 비트코인 ETF는 허락했지만 가격 조작 우려가 있다며 현물 비트코인 ETF는 허락하지 않았었다.코인베이스와 CBOE가 SEC의 이 같은 우려를 달래기 위해 공동 감시 계약을 체결한 것. 이에 따라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하반기 증시 전망]⑤[편집자주]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로 행복했던 상반기가 끝났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2600선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2500선까지 밀리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태운다. 하반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비트코인. /사진=Pixabay.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올해 상반기 꾸준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정책, 리플 소송 등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상반기 2배 가까이 오른 비트코인━10일 가상자산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상반기 동안 1만6548달러에서 3만477달러로 84% 올랐다. 국내 최대 원화거래소 업비트에서는 2108만원에서 4058만원으로 올라 93%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비트코인은 상반기 중 꾸준하게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 불어닥친 '크립토 윈터'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미국의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과 미국·유럽에서 터진 은행 위기 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치를 모두 가진 대체투자처로서 매력이 부각된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업비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가격 상승으로 지나친 낙관론이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업체인 매트릭스포트는 지난 6일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만5000달러(약 1억63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매트릭스포트는 지난달 22일 비트코인이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약세장의 끝과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정석문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2022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페이스를 줄이고 뒷단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며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 말 3만달러대까지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며 "2023년은 2~3년간 지속될 불장의 첫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비트코인 현물 ETF, 연준 금리정책, 리플 소송 등 하반기 변수━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나스닥을 통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재신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진=뉴스1.최근 비트코인 가격변동 요인으로 작용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30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나스닥증권거래소·시카고옵션거래소 상장 신청을 불허했다. 블랙록은 이달 4일 세부사항을 추가한 상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이번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등판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자신했다. 래리 핑크 CEO는 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ETF 신청에 관해선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블랙록은 그동안 SEC로부터 500건이 넘는 ETF를 승인받았으며, 거부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EC는 8월 중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재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승인과 불허뿐 아니라 결정 시한을 미루는 선택지도 존재한다.연준의 금리정책도 비트코인 가격 향방을 가를 요인이다. 상반기 가격 상승에는 미국의 긴축정책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에 기반한 긴축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대부분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 연착률 가능성이 커져 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1981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경기침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3일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격차)는 -109.50bp(1bp=0.01%p)까지 벌어졌다. 만기가 긴 채권 금리가 짧은 채권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리플과 SEC 소송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리플 소송의 핵심은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리플이 패소하더라도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석문 센터장은 "만약 경기침체 시그널이 더 심화한다면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들며 위험자산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원이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SEC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알렉스 마신스키 전 셀시어스 CEO[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지난해 파산한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앨릭스 마신스키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마신스키가 이날 오전 뉴욕에서 증권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3개 기관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마신스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마신스키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의 수익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욕주 검찰도 비슷한 이유로 마신스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마신스키는 셀시어스가 고객들에게 17%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은행처럼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셀시어스는 가상화폐를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예치된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파산했다. koman@yna.co.kr비트코인 폭등 '일등 공신' 블랙록블랙록 ETF 재신청 후 연고점 돌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를 뚫으며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랙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약세를 보이다 재신청 소식이 나오자 상승 전환했다. 2023.07.04. myjs@newsis.com[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또다시 비트코인 강세를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블랙록 ETF 소식은 앞서 한 달 넘게 부진했던 비트코인을 폭등시킨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9일 업계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재신청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재신청 소식에 즉각 반응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랙록 ETF 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재신청 소식이 나오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ETF 상장 신청 반려 당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3950만원대까지 밀린 바 있다. 하지만 상장 재신청 이후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인 4103만원도 돌파했다. 재신청이 오히려 추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이에 업계는 향후 블랙록 행보가 또다시 비트코인 초강세를 이끌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재신청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미국 규제당국의 문턱을 넘을 거란 낙관론이 부상하면서다.낙관론이 현실화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들썩일 전망이다. 해당 ETF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 부족했던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는 이번 낙관론에 힘을 보탠다. 그가 ETF 재신청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룰 금융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블랙록의 목표는 비트코인 거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 개혁을 위해 SEC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다. SEC 역시 블랙록의 ETF 상장 신청을 가상자산 대중화 과정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앞서 상장 신청이 반려됐던 이유가 보완된 점 역시 기대감을 부추긴다. 블랙록은 앞서 SEC가 지적한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한 상태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거래 활동과 청산 활동, 고객 식별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이에 SEC가 우려하는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블랙록은 또 감시 공유 계약 협력사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지정했다. 코인베이스가 현재 미국 기반인 점과 미국 달러 표시 비트코인 거래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보인다.이 밖에 피델리티와 반에크,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등 다른 대형 운용사들이 블랙록을 따라 ETF를 재신청한 점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SEC가 이들의 신청을 한 번에 승인해 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이들의 ETF가 모두 승인된다면, 이전 블랙록 ETF 단독 호재보다 파급력이 클 거란 분석이 나온다.네이트 제라시 ETF스토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다면 시차를 두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기 혹은 동시에 결정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비트코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10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55% 내린 3만97.7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08% 내린 3980만원에 거래됐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은 보합세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63% 내린 1855.43달러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0.24% 내린 245만4000원에 거래됐다. 투자자들은 오는 12일 발표될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월 CPI가 3%로 둔화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0%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달치(5.3% 상승)와 비교하면 둔화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고용도 여전히 강해 추가 긴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은 20만9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돈 수치지만, 실업률은 3.6%로 전월(3.7%)보다 낮아졌다. 한편 투자심리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6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5·탐욕적인)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글로벌시장 지표 / 7월 13일 오전 6시 현재]  
  
  
  
[미국증시 마감시황]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6.01포인트(0.25%) 상승한 3만4347.4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2.90포인트(0.74%) 오른 4472.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8.26포인트(1.15%) 상승한 1만3918.96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시장은 이날 나온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했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지난해 6월 9.1%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날 수치는 전달의 4.0% 상승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3.1% 상승보다 낮았다. 6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전달의 0.1% 상승보다 높아졌으나 시장의 예상치인 0.3% 상승을 밑돌았다.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라 시장 예상치인 5.0% 상승과 전월의 5.3% 상승에 비해 둔화했다. 6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예상치인 0.3% 상승과 전월의 0.4%를 모두 밑돌았다.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대다수 전문가는 연준이 7월에는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추가 인상 여부는 이후 지표에 달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25~26일 예정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2% 수준으로 전날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0% 수준으로 전날의 72% 수준에서 높아졌고,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1회 이상 더 인상할 가능성은 21% 수준으로 전날의 37% 수준에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5월 말 이후 약간 증가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물가는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올랐고, 몇몇 지역은 인상 속도가 둔화했으며, 고용도 완만하게 늘었다고 평가했다.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하자 10bp 이상 하락해 3.83%까지 떨어졌다. 이는 이달 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15bp 이상 하락한 4.73%까지 밀렸다. 이는 지난 6월 말 이후 가장 낮다.[특징주]■기술주기술주가 상승했다. 애플 0.9%, 마이크로소프트 1.42%, 엔비디아 3.53%, 아마존 1.57%, 알파벳 1.53%, 메타 3.70%, 넷플릭스 0.87% 상승 마감했다.■전기차주테슬라는 씨티그룹이 목표가를 215달러에서 278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0.82% 오른 271.799달러에 마감했다. 루시드는 2분기에 차량 인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11.82%, 니콜라는 2.13% 내렸으나 리비안은 4.27% 상승 마감했다.■코인베이스코인베이스는 캐시 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지수펀드(ETF)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거의 1년 만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3.59% 하락했다.■시스코시스템즈시스코시스템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2.65% 하락했다.■비욘드미트비욘드미트는 회사가 미국 입점 점포를 확대해 1만4천개 점포에 자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13.52% 올랐다.[유럽증시 마감시황]유럽 주요국 증시는 12일(현지시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범유럽 지수인 STOXX600 지수는 전장 대비 6.82포인트(1.51%) 오른 458.54에 장을 마쳤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133.59포인트(1.83%) 상승한 7416.11에 장을 마쳤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232.66포인트(1.47%) 전진한 1만6023에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113포인트(1.57%) 오른 7333.01에 장을 마감했다.[중국증시 마감시황]중국증시는 12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78% 하락한 3196.13로 장을 마쳤다.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는 각각 0.99%, 0.90%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종목별 등락 상황을 보면 농업 섹터가 역상승했고, CPO, 디지털보안, 통신설비 등 섹터는 하락세가 두드러졌다.한편 외국인 자금은 총 4.95억 위안 순매수에 나섰다.[베트남증시 마감시황]베트남증시는 1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벤치마크 VN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2.43포인트(0.21%) 오른 1154.20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다. 151개 종목이 상승, 185개 종목이 하락했다.베트남증시 시가총액 상위30대 종목으로 구성된 VN30지수는 -0.13포인트(-0.01%) 1146.54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14개 종목이 올랐고 15개 종목이 하락했다.중소형주 위주의 하노이거래소 HNX지수도 -0.33포인트(-0.15%) 하락한 228.88포인트를 기록했고 86개 종목 상승, 99개 종목이 하락했다. 비상장기업 UPCoM거래소는 0.10포인트(0.11%) 소폭 상승한 85.9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47개 종목이 상승을 116개 종목이 하락했다.이날 거래대금은 전거래일에 비해 약 16% 감소한 16조6690억동(한화 약 9080억원)을 기록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4420억동 순매도로 이날 장을 모두 마쳤다.[국제유가]국제유가는 예상보다 둔화한 물가 수치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92센트(1.2%) 오른 배럴당 7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금]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 넘게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장 대비 1.3% 오른 온스당 1961.7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 더 많은 글로벌투자 뉴스는 [한경 KVINA]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재 몰아보기https://www.wowtv.co.kr/Opinion/SerialColumn/List?subMenu=opinion&Class=G&PlanID=894&menuSeq=79064비트코인, 1.03% 하락한 3997만원긴축 장기화 우려 확산…위험자산 급락세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긴축 악몽 부활에 하락세를 보인다. 최근 유지했던 4000만원대도 반납한 상태다.7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5% 빠진 399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1.03% 하락한 3997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64% 밀린 2만9994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250만원대를 반납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08% 빠진 247만원을, 업비트에서는 2.13% 밀린 247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85% 하락한 185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시장은 전날에 이어 긴축 지속 우려에 주목했다. 6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노동 및 경제 지표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예상대로 호조를 보이자 전날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비친 긴축 기조가 힘을 받은 것이다. 이에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등 위험자산들이 급락세를 보였다.이 가운데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결과가 동시에 나올 거란 전망이 제기됐다. 인 네이트 제라시 ETF스토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다면 시차를 두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기 혹은 동시에 결정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뉴욕증시도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1.07%, S&P500지수는 0.79% 각각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지수는 0.82% 내렸다.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5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6·탐욕적인)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신청새 먹거리로 급부상···암호화폐 제도는 미비권도형·김남국 수사도 부담···당국 '신중 모드'  
  
  
  
/연합뉴스[서울경제] 미국 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자산운용 업계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도 미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도 금융 당국이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ETF 도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이달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SEC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인베스코·피델리티·위즈덤트리·반에크·아크 인베스트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낸 상태다. 블랙록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SEC가 내용 불충분과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ETF 상장을 불허하자 이달 초 신청서를 다시 냈다.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상장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만큼 현지 증권 당국이 언젠가는 1호 승인 사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부터 한국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 암호화폐 ETF 상장 사례가 나올 경우 이는 운용 자산 규모를 대폭 늘리는 획기적인 새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추정이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SEC가 블랙록의 ETF를 승인해준다면 이는 빅뱅과도 같은 사건”이라며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그동안 낮은 신뢰도를 이유로 비트코인 투자를 꺼렸던 개인 투자자들도 제도권에 편입된 ETF에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보다 원활하게 편입하고 매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물보다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법적 제도만 마련된다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상장 사례가 나오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를 더 신중하게 살필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게 나왔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섣불리 ETF에만 길을 터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경우도 주요 골자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뿐이다. 테라·루나 사태를 유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점도 암호화폐 상품 논의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당국의 핵심 실무진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금융위 관계자는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가치 평가, 유동성, 수탁(커스터디), 자금 조작 가능성, 차익거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해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TD코웬의 스티븐 그라골라 애널리스트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초 이후 비트코인 가격 추이/사진=코인마켓캡블랙록 ETF 신청 후 20% 상승한때 3만1450달러 돌파...13개월 래 최고가기업들 회계 처리 걱정 없이 비트코인 투자 가능일반 투자자도 MTS서 손쉽게 비트코인 거래[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비트코인이 올 초부터 시작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다. 블랙록 등이 신청한 ETF가 승인되면 그동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큰 손인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 시장이 들썩이는 중이다.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비트코인 가격은 3만145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13개월 래 최고가다. 연초 대비 가격 상승률은 90%에 이른다.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은 1만6550 달러였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지난달 15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0% 이상 뛰었다.비트코인은 올해 큰 부침 없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이 위축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영향을 덜 받았다. SEC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입장을 진작부터 밝혀왔기 때문이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19 종의 코인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이라는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알트코인은 20%씩 하락했지만, 증권성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비트코인은 5% 하락하는 데 그쳤다.뒤숭숭한 분위기 속 2만 달러 중반을 횡보하던 비트코인을 3만 달러까지 끌어 올린 모멘텀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제공했다. 블랙록은 지난달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신청했다. 블랙록 ETF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따라 제출한 상태다.비트코인 현물 ETF 뭐기에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0% 이상 뛰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ETF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미국에서 기업·기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최근 15만개를 돌파했다. 현재 시세로 45억2000만달러(약 6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했다.하지만,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 기업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계와 세금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금융 자산인 ETF 형태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업과 금융 기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 매니저는 “일반 법인 중에 회계나 세금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를 가진 곳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물 비트코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장되겠지만(일반적으로 10달러 수준), 기초자산인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추종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나 세금 기준을 기존 ETF 투자와 똑같이 처리하면서도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똑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의 저변 확대도 전망된다. 이 매니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는 것이 복잡하고 불편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미 이용하고 있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SEC,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엔 승인할까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시간의 문제일 뿐’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SEC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참여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론화가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업계는 이제 승인 여부보다 ‘언제 승인이 되느냐’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통 블랙록 같이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청 전 금융 당국과 어느정도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관행”이라며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데 신청을 냈을 것 같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SEC가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 계획을 모두 반려해 왔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했다. 운용자산(AUM) 규모가 10조 달러 이상인 블랙록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SEC가 블랙록의 ETF 출시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또 블랙록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감시 공유 계약’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승인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거래 활동, 청산 내역, 고객식별 등 정보를 공유해 시장 조작을 막는 기능을 한다. SEC는 그동안 시장 조작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잠재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